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8 제222호(통권 441호)



- 02 권두언
 - 04 교육감 동정
 - 05 장학현장
 - 06 교육 칼럼
 - 08 특집 / **꿈을 심고, 다지는 진로교육**
 - 교육은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가장 큰 힘 / 고영진
 -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하는 자세 / 노성희
 - 꿈을 키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경남 진로교육 / 성기홍
 - 진로교육은 미래교육이다 / 김병숙
 - 커리어존(Career Zone)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 이보라
 -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향상 / 박재오
 -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 하혜진
 - 22 좋은 수업 다지기
 - 전원 참가 수업 만들기 / 장은주
 - 나는 교사(教師)다! / 서수민
 - 25명의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활동 / 윤나리
 - 28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핀란드의 평등교육 / 윤수영
 - 34 명품학교, 명품교육
 - 마지막수업 프로젝트 : 자유상상화로 꿈을 펼쳐요 / 오창성
 - 책가방 없는 토요일 상상해보셨나요? / 윤한실
 - F-4(Fun-4)와 즐기는 행복한 학교 / 안국태
 - 학교에 가면 꿈들이 자라나요 / 정민화
 - 자연과 함께한 구두산 야영수련활동 / 정근수
 - 물방울 학급경영 / 이현님
 - 52 전문가 초대석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가정에서 하는 학습클리닉 / 변경오
 - 54 교육미담
 - 56 참여마당
 - 교 원 - 노래로 종례해요 / 이순운
 - 학 생 - Staying 2 years in Irvine, California / 김강은
 - 59 문화이야기
 - 61 지상갤러리
 - 수련(水蓮) / 박근수
-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9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8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8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꿈의 나무가 성장하는 교육요람!

교육가족 여러분!

요즘처럼 기상이변이 잦은 때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뜻 깊은 여름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학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변을 돌아보거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역량을 기르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대인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정보를 재창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요구됩니다. 이런 능력은 곧 자신의 경쟁력이 되며 국가의 경쟁력이라 하겠 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도 이런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적용하고 있으며, 자기 계발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창의적 인재 육성은 우리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학습을 넘어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교육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 육성은 교육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와 협조를 통해 더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최고(the best)의 사람도, 유일한(only one)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독특하고 가치로운 존재라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펼쳐가는 경남의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방학이 꿈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 오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아버지와 함께하는 부자사랑 캠프 개최
- 02 경남은행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 03 도내 대학과 교육협력 간담회 개최
- 04 설동근차관 모교 마산고 방문
- 05 재외동포 모국체험단 접견
- 06 제1회 경남대학 진학 박람회 개최



06-



07



08



10



09



11

- 07 낙동강학생수련원 - 공개 수업 및 흡서기 프로그램 운영
- 08 경남유아교육원 - 부모 독후활동 전시회 개최
- 09 김 해 도 서 관 - 찾아가는 원예교실 운영
- 10 통영교육지원청 - 2011. 통영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캠프 실시
- 11 함안교육지원청 - 함안 학생독서 문학기행 실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하는 자세



노 성 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저는 18년간 공인회계사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대부분 감사하였습니다. 영리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출신장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매출을 신장하기 위하여 영리기업은 계약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거나 자신의 시간을 받듯게 계약상대방과 함께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면 부정이나 비리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그룹 내 몇몇 회사의 자체 감사결과에 매우 실망하여 대표이사 및 관련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거나 기타 징계를 내린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보다 훨씬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관련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공무원 윤리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로 임하는 자세, 청렴, 공정, 투명하게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가진 집단이기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학교급식 및 부교재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 전체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영리기업이라면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적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과 관련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요구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민간기관보다 엄격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반부패와 관련하여 기관 청렴도 평가와 별도로 고위직 청렴도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렴도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과거에 비하면 지나칠 정도로 수준이 상향된 것이 현재 사회적 분위기이며 선진국수준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렴한 교육계 공무원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리의 시작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청렴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수용하거나 관련업무부서와 공조하여 민간기업의 청렴도를 증진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교감독자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자이므로 계약관련 하여 문제가 생겨 불순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차적 책임을 지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감독자가 해야 할 의무는 민간기업의 요청시 청탁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업계는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공인회계사의 감사책임의 일차 책임은 감사담당파트너(이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부실감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셋째,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현행 3년 주기로 시행하나 이를 보완하여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거나 모범적으로 수행된 피감사대상학교는 종합감사주기를 늘이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많은 학교는 종합감사주기를 단축할 예정입니다.

넷째, 모든 종합감사대상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매년 업무관련 자체점검체커리스트를 제출케 하여 이를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업무수행절차의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다섯째, 감사담당관실 내부 감사담당자가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감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는 배제할 예정이며, 자체감사결과 처분협의회에서 감사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심리담당으로 참여하여 감사처분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중시하고 관련업무부서와 함께 현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키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경남 진로교육



성기홍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 과장

경남 교육비전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이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진로교육에 한층 더 힘을 결집시키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길러주고 진로를 개척해주어 학생 스스로 꿈을 디자인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구인’과 ‘구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여 또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애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생애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진로교육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에 진로교육과를 신설하였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을 고등학교에 배치하였고 2014년까지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 진로교육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힘입어 우리 경남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 진로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받아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음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진로교육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있는 진로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I. 경남 진로교육 정책 추진 개요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실시 · 학생의 진로설계 능력 향상 ● 학부모와 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건전한 인식 함양 ● 진로교육 지원 체제 구축으로 진로교육 연계 지도
<p>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교육과정중심의 학교진로교육 강화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진로교육 인식 전환 필요 ● 학교 · 지역사회 · 유관기관의 협조와 체계적인 지원 체계 미흡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교과부 진로교육 선도교육청 지정(2011. 3. 10.) ● 2011 진로교육 기본 계획 시달(2011.3.3.) ● 경남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 · 운영(2011.4.) ● 2011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82개교 380,000천 원) ● 2011 커리어코치 활용 진로교육 지원(144개교, 1,959시간) ● 2011 진로교육 포럼 개최(2011.5.13. 500명 참가)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진로설계 및 진로개발 능력 향상 ●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진로정보 전달의 체계화 및 진로정보 공유 활성화

II. 주요 사업별 추진 내용

1.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 운영

- 도단위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하여 교과부↔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에 이르는 진로정보 전달 체제 구축
- 6명의 전담인력과 센터 확보

2. 커리어존 설치 · 운영

- 단위학교에 진로교육 전용 교실 설치, 각종 교육 매체 구비로 학교의 진로활동 지원 및 진로정보 관리와 공유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실현
- 초1 · 중1 · 고1 개교(총 3개교)에 커리어존 설치 · 운영

3. 경남 진로교육 체험전 개최

- 진로교육선도교육청의 사업 결과를 전국 단위로 홍보하고, 진로 · 진학정보 제공
- 2011. 12. 8 ~ 2011. 12. 11까지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예정

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인정제 매뉴얼 개발 보급

- 초·중·고등학교 생애단계별로 자기이해, 직업탐색, 진로계획 등의 진로교육을 체계적 지도
- 초·중·고등학교 3,400부 보급, 일선학교에서 학생 진로교육에 활용

5. 진로교육 동아리 운영

-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 동아리 33개 선정
- 동아리별 200만 원 예산 지원으로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교육 지원

6. 진로·진학 관련 연수 및 워크숍

-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진로업무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
- 진로진학교사 해외 체험 연수, 진로교육 담당 교사 연수, 진로전문가 연수, 관리자 연수 등의 연수 지원

7. 진로·진학지도 도움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사의 진로진학 지도와 상담의 전문성 제고, 학생 학부모의 올바른 진로인식 제고, 진학지도 자료집, 진로정보지「커리어 교육경남」등 10여 종 발행 보급 예정

8.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진로체험 캠프 운영

- 멘티와 멘토가 함께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모델을 만들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근본적인 진로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주도 진로설계 능력 배양
- 중학생 200명, 멘토 20명이 함께 하며 2011.8.16 ~ 2011.8.19(3박 4일)일까지 낙동강 수련원에서 실시

9. 「커리어포트폴리오 제작 대회」운영

- 개인의 진로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능력 향상
- 경남도내 전 초·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참가 가능
- 2011학년도 학생 본인의 진로관련 누가 기록물을 제출하여 학교대회 →지역교육지원청대회→도대회 실시
- 우수 학생 표창(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10. 학생 진로교육 특강 운영

- 다양한 진로 정보 제공으로 학생의 진로설계 능력 향상
- 중학교 3학년 학생 45,000여 명, 학부모 희망자 대상
-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현재 컨텐츠 개발 중이며, 사이버 진로특강 개설
- 특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교육, 진로정보, 진학정보, 학습정보 등으로 구성

진로교육은 미래교육이다



김 병 속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우리들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전설처럼 내려온 이 신조만이 살길이라 생각한다. 이제 공부로 승부를 거는 세상은 끝났음에도 이 신조에 매달려 있다. 이 세상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실력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변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활동할 그 직업시장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계속 아이들 성적만을 따지고 있고 특히, 그 반에서 몇 등이나에 관심이 높다.

더군다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모두 공부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키우고 못키우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라는 신화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가에 열중한다. 학생들은 소질과 재능을 갖고 태어나나 구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부모의 지시대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지는 못한다.

20년 후 직업시장의 특징을 보면 지금 우리 신조의 근거가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현재 유망한 직업에 집착하여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세계에서의 유망한 직업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의 유망한 직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야 한다, 법대를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 진로를 논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직업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미래사회는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린 기업들은 사라지고, 1인 1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에 취업하여 그 기업내에서 경쟁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마케팅, 제조, 판매를 하는 개인 1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좋은 정보들을 알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직업세계도 이와 같아서 신문에 ‘유망직업’이라는 것과 ‘자격증 열풍’이라는 요란하게 큰 문자로 장식된 지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런 직업이 정말 유망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직업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심히 준비했건만..... 에누리없는 취업전쟁’, ‘50대 가장은 수험준비 중 가정주부는 취업준비중’, ‘이런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피해라’, ‘쉬는 짧은이 양산..... 여성취업은 활기’ 등 직업시장의 실상을 알려주는 무수한 문구들을 만나게 될수록 더욱 유망한 직업을 찾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직업들이 다양하고 복합된 형태로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주기가 매우 빨라졌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변화되어 과거 ‘지위지향적이며 명예로운 직업’에 대한 선호 경향은 ‘오래 일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단연 1위로 꼽아 교사나 공무원이 가장 인기있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공무원 고시원이 생기는가 하면, 공무원시험이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인다. 교사가 단연 유망한 직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임용고시 인원수를 조정하게 되자, 교육대학생들이 교사임용고시를 거부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렇듯 심각하게 유망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새로운 직업으로 가는 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새로운 직종이 유망하다’는 관념이 팽배하면서 동일한 직업이지만 영어로 표기하여 새로운 직업인양 둔갑시키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직업상담사’는 ‘커리어 코치’ 또는 ‘리쿠르터’, ‘학예사’는 ‘큐레이터’, ‘꽃꽂이전문가’는 ‘플로리스트’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고전적인 용어에서 첨단용어로 전환하는 양상도 가세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농업은 생명과학으로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첨단화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로 인하여 영어 및 첨단용어로 표기된 직업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때부터 ‘유행하는’ 직업이 마치 ‘유망한’ 직업인양 호도되는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놀랍게도 100세를 구가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45년 후에 평균수명이 150세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 그 시대의 인간은 120세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진정한 유망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증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어떤 보물찾기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많은 일자리가 없는 직업같이 보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유행하는 직업’에 현혹되지 말고 ‘유망한 직업’을 찾기 보다는 ‘성장하는 직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교육계에 부는 바람은 진로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로교육은 곧 학생의 미래에 대한 교육으로써 미래 세계의 추이, 미래사회 전망, 미래 직업세계 변화, 기업의 전망 등의 직업세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커리어존(Career Zone)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이 보 라
창원 안민초등학교 교사

본교는 2011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진로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인식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진로교육을 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자기주도적으로 구성해 가기 위한 생애교육이라고 본다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두드리며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커리어존’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 교육 운영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진로교육 종합체험센터 커리어존(Career Zone)

본교에서 구축·운영하는 커리어존(Career Zone)은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On-Off Line 진로상담 및 놀이와 활동 중심의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활동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로인식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종합체험센터이다.



커리어존은 진로교육 게시자료와 전교생 꿈관이 조성되는 커리어스트리트(Career Street),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서실, On Line Off Line 진로상담 부스 및 직업카드 놀이, 진로 독서, 직업 동영상, 꿈 공작 체험놀이터, 리더십, 가상 진로체험 총 6종의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부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리어존을 통하여 본교에서 개발한 진로교육 모델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진로 정보 및 진로 관련 교육 자료의 체계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진로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커리어존'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본교는 「'커리어존'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모델 구안」을 주제로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T/F팀을 조직하여 커리어존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9월부터 학생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커리어존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운영한다. 커리어존 활용 3 Program은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활동, On-Off Line 진로 상담, 놀이와 활동 중심의 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활동은 학년별 교과 단원분석을 통하여 통합요소를 추출한 후, 본시 학습 주제와 진로교육의 통합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학년별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이를 통해 교과학습목표와 진로인식능력 신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On-Off line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On-line 상담실 메뉴를 설치하고, 경남진학진로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한 On-line 맞춤형 진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본교 전문상담인턴교사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의하여 Wee클래스와 커리어존 내부의 진로상담부스를 활용한 Off-line 상담이 실시된다.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세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본교 T/F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직업카드 놀이, 진로 독서, 직업동영상, 꿈 공작 체험놀이터, 리더십, 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커리어존 내부에 위치한 각 부스별로 운영하고 개개의 부스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각 부스는 본교 학부모자원봉사단인 안민 커리어코치에 의해 운영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또한, 학급별로 1일을 커리어존 체험의 날로 지정하여 진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커리어존을 활용한 집중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커리어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1일 동안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Holland 진로 발달검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로 함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서로의 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꿈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개인별 진로교육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인별 꿈 가꾸기 포트폴리오와 경남진학진로정보센터의 My Career를 활용하였으며 이렇게 개인별 진로교육 활동결

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3. 교육과정과 연계한 꿈 꾸기 활동 전개

5월을 꿈이 자라는 「진로의 달」로 지정하여 주별로 진로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였다. 일터탐방보고서 작성, 꿈 캐릭터 만들기, 안민 자율방송(우리 주변 직업인 인터뷰) 시청 및 방송소감록 쓰기, 독서교육과 연계한 플래시몹 행사 참여, 예술교육과 연계한 동요방송에 나의 꿈 소개,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리기 학예 행사 실시 등 학생들의 진로인식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학년별로 진로체험 현장학습을 운영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와 관련이 있는 직종을 사전에 조사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 탐방 및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인터뷰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인식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안민 특색교육활동(독서교육, 예술교육)과 연계하여 도서관에 진로독서코너를 설치하고 독서인증제 실행 단계 시 필독도서에 진로 관련 책자를 구성하였으며, 달빛도서관 테마수업 주제 선정 시 진로관련 내용을 삽입하였다.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동요방송 〈우정과 꿈을 여기에〉 운영 시에 학생들의 꿈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켰다.

4. 꿈의 두드림(Do-Dream)! 커리어존의 기대효과

진로교육 종합체험센터 커리어존(Career Zone)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꿈을 키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학습프로그램 및 진로정보, 진로 관련 교육 자료의 체계성,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진로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진로인식능력 신장과 더불어 자신의 소중한 꿈을 향한 첫걸음이 커리어존 여행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도서관 행사 (자기이해)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



학급별 나의 꿈 발표회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향상



박재오
창원 내서중학교 교사

본교는 인근의 학교들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경제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속해 있어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로 우리 학생들은 매사에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력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미래의 자기 직업에 대한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 구성원 모두가 갖게 되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교교육의 비전인 '큰 꿈을 키워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학생'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안에 다음과 같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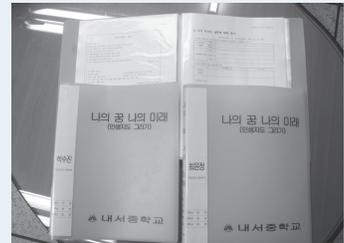
1. 「진로와 직업」 교과활동과 「커리어 넷」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와 직업」 교과활동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선택교과로 진로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수·학습활동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된 직업 및 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센터인 진로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사이트 「커리어 넷」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정보 수집 및 진로탐색활동을 하고 있다.

가.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34시간 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EBS에서 제작한 직업의 세계 및 진로교육 DVD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시청각교육을 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나. 컴퓨터실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커리어 넷의 <아로플러스>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각종 표준화 검사(직업 적성,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진로성숙도 등)
- 2) 각종 진로교육 자료의 활용
- 3) 학습활동산출물을 <나의 꿈 나의 미래> 파일에 정리하여 관리함



<‘나의 꿈 나의 미래’ 파일>

2.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통합 진로교육은 일반교과의 학습내용 중 진로관련 요소를 추출한 다음 교재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실행계획의 연수 후 운영하고 있다.

가. 교과통합진로교육 대상은 1학년으로 하고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기술·가정 4개 교과를 실시하고 있다.

나. 운영시간은 교과별 총 3차시로 하고 1, 2차시는 기존의 개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위탁하여 개발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학습자료(영동중학교, 비산중학교), 3차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9월 중에 수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통합진로교육 교원연수>

다. 교과통합 진로교육 총 운영시간은 78시간으로 학급별 13시간씩 운영된다.

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장견학, 현장체험, 전문인 초청 교육, 시청각 자료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체 진로체험과 개인별 진로체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직업에 대한 간접체험 교육과 전문인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으로는 직업흥미별 편성된 그룹이 직업현장을 견학하거나 체험하고, 직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체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친지의 직장을 방문하여 직업을 체험해보거나, 기관이나 시설 등을 찾아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나의 꿈 발표대회’를 체육관에서 가져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08:05~08:45(40분 간) 전교생의 사제동행 독서활동과 미래의 꿈이 영그는 「책 나무의 향기」 독서기록장에 감상문 쓰기를 통해 꿈 나래를 펼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수초청 강연회, 진로교육 정책 자문위원회, 커리어 코치 양성을 위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22명, 12시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원격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커리어 존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마산 들섬에서 직업인과의 인터뷰〉



〈나의 꿈 발표대회를 마치고〉

이와 같은 진로교육 활동은 본교가 2010학년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창의·인성 모델학교로 뽑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진로교육을 선도하는 본교에서 오늘도 꿈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하혜진
창원 신월고등학교 교사

올해 창원신월고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진로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인정제 실시, 커리어 존 활용을 통한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관련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계획하고 추구하는데 필요한 능력, 태도,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본교 1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고 관심 분야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운영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방침

사전활동으로 진로표준화 검사 및 해석,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체험활동 실시·체험 활동 후 커리어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통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전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직업 체험하기를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HOLLAND 직업성격유형에 따라 6가지 직업 유형이 골고루 배치되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게 한다. 또한, 진로프로그램 체험활동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창의적체험활동종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제작하도록 하여 커리어포트폴리오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한다.

2. 진로체험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일시	인원	체험 장소	내 용
1	나의 꿈 방송인	6/1(수) 13:30~17:30	10	KBS 창원방송총국	- TV 공개홀 및 스튜디오 견학 및 각 방송장비의 기능 및 역할 탐색 - 방송 기술자, 기자, 방송작가, 아나운서, PD, 방송제작 기획가 등 체험
2	선박 블록 설계 및 제작	7/7(목) 8:30~13:00	20	창원문성대학 기술관 402호	- 조선소에서의 역할과 영역 - CATIA-Ship 3D를 활용한 설계 - 선체제작 실습 등을 통해 조선산업 전문가 체험 활동
3	건강한 내일을 잡아라	7/8(금) 09:00~17:30	40	마산대학, 광희병원 외	- 병원의 전반적인 조직 이해 - 의료장비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행정관리원, 의무기록사 등 체험
4	나도 커피 바리스타	7/13(수) 8:30~13:00	21	창원문성대학 식품관 104호	- 커피 종류 및 효능, 커피머신조작 -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등 다양한 커피 조리법을 연구하는 커피바리스타 체험
5	내가 살고 싶은 집 꾸미기	7/13(수) 8:30~13:00	30	창원문성대학 신조형관 510호	- 도면 읽기, 제도 기호 익히기 - 주택 스케치 및 제작 - 건축설계사 체험 활동
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처방	7/14(목) 8:30~13:00	20	창원문성대학 문성체육관 208호	- 헬스의 기초, 신체구성, 부위별 운동 - 운동처방법을 통해 헬스지도자, 스포츠 센터지도자 체험 활동
7	나도 요리왕	7/14(목) 8:30~13:00	32	창원문성대학 식품관 505호	- 한식, 양식 조리 실습 - 조리사, 푸드스타일리스트 체험 활동
8	디자인 맛보기	8/18(목) 8:30~13:00	40	창원문성대학 조형관 304호	- 넥타이, 스카프, 생활도자 등을 제작해 보는 제품디자이너 체험 활동
9	자동차 엔진 정비	8/23(화) 8:30~13:00	20	창원문성대학 기술관 105호	- 자동차엔진의 작동원리 및 주요부품을 이해하고 분해 조립 실습 - 자동차정비원, 자동차 전문가 체험 활동
10	피부관리와 화장품 만들기	8/23(화) 8:30~13:00	20	창원문성대학 조형관 101호	- 향의 효과를 이해하고 선택하여 화장품 제작 - 피부관리를 해보는 화장품 전문가, 피부관리사 체험 활동
11	나도 제빵 왕!	8/24(수) 8:30~13:00	40	창원문성대학 식품관 405호	- 제과 제빵 실습 - 제빵사 체험 활동
12	모의 주식투자	8/24(수) 8:30~13:0	30	창원문성대학 경상관 201호	- 시장경제의 이해, 주식과 증권시장의 이해 - 주식투자를 통해 에널리스트(투자분석가) 체험 활동

4.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가. 해당 체험프로그램일 전일 점심시간에 사전활동 실시

- 1) 프로그램 소개
- 2) 모듈 나누기
- 3) 모듈별 체험활동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4) 준비물 및 이동 방법 협의
- 5) 안전교육 실시
- 6) 체험 활동 보고서 제출 및 포트폴리오 제작대회 안내

나. 해당일에 체험프로그램 실시

- 1) 체험 활동 실시
- 2) 체험 후 설문 조사 실시
- 3) 학생용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

다. 사후활동 실시

- 1) 학생 개인 진로카드 기록 및 창의적체험활동시스템 입력
- 2) 학생용 체험활동 보고서 취합

5.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첫째,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관심 분야의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로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고 진로의식이 성숙된다.

둘째, 자신의 적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진로 미결정으로 인한 고민을 해소한다. 이로 인해 진로가 명확해지고 진로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학업 성취 의욕을 고취시킨다.

셋째, 직업 체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작성해봄으로써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원 참가 수업 만들기



장은주

창원 대산초등학교 교사

1. 전원 참가 수업이란?

교사가 가장 꿈꾸는 수업이 학급 학생 모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경청하고 반응을 보이며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업을 하다보면 가장 힘든 것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을 참가시키거나, 주의 산만한 학생들을 집중시켜 수업에 참가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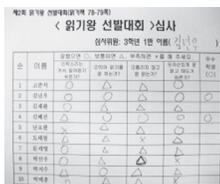
전원 참가 수업이란 전원 참가·전원 추구·전원 성취 수업이란 말을 줄인 말로 학급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의 전능을 다하여 스스로 학습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을 말한다.

2. 전원 참가 수업 방법

여러 가지 전원 참가 수업 방법 중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원 참가 수업 기술	수업 방법 및 적용
과제를 주어 듣게 하기 (모두가 심사위원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평가나 노래 부르기 대회, 읽기 대회, 글씨쓰기 대회 등에서 학급 학생 모두가 심사위원 되기-심사표를 배부하여 O,△,X표를 표시하며 자기가 뽑은 우수학생 3~5명을 표시하게 함 교사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가 참가하게 되어 진지하게 듣고, 평가하고, 전시된 것을 감상하는 효과가 있음
중요한 문장 밑줄 긋기, 중요한 낱말 동그라미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교과서의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 밑줄 긋기-저학년 학생들은 답을 바로 적기에는 글자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밑줄 긋고 따라 쓰기를 하면 효과적임 공부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찾아 동그라미 하기 교과서 설명 문장에서 중요한 낱말 3가지 찾아 동그라미하기
틀리게 읽는 부분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이 읽는 글을 듣고 틀리게 읽는 부분 3군데를 찾아 동그라미 하기-공부 시간의 핵심 되는 낱말이나 구절 등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읽어 학생들에게 강조할 때 활용, 학생들이 흥미롭게 쉽게 참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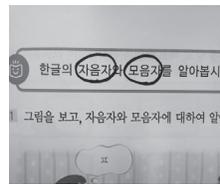
전원 참가 수업 기술	수업 방법 및 적용
○, X로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X퀴즈에 활용 ■ 발표 내용이 옳거나 찬성하면 ○, 납득이 가지 않으면 X 표시하기 ■ ○, X판을 활용하거나 수업 내용에 따라서는 ○, X를 공책에 표시하기
따라 읽기, 따라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따라 읽거나 따라 말하기 ■ 친구 따라 읽기-선생님이 시범 보인 후 학생에게 선생님처럼 읽게 하고 학급 학생들이 따라 읽게 하면 효과적임 ■ 친구가 발표한 내용 따라 말하기-집중하여 듣기에 효과적임
손가락으로 요소(지시한 곳)를 짚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고 있는 부분 손으로 짚기 ■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나 삽화, 사진 손으로 짚기
틀리게 묻고 빠르게 답하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내용을 읽은 후 교사가 틀리게 묻고 '아니오' 답 유도 →정말 그런지 교과서에서 올바른 답 찾아보기 → 올바른 답 말하기 ■ 동시나 노래 가사 외우기 등에 활용하여 따라 읽기를 한 후 반복적으로 틀리게 묻고 빠르게 답하게 하면 암송에 효과적임
전원을 일어서게 하여 지시나 발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립→발문이나 지시→각자 나름의 생각 확립→자리에 앉기→학습장 기록



모두가 심사위원 되기



○, X 로 나타내기



중요한 낱말 찾기



따라 읽기

3. 교사의 자세

전원 참가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부지런해야 한다. 특히 교사가 컴퓨터 책상과 칠판 앞만 고집하기보다는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지 순시해야 하고 확인해야 한다. 교사가 조금만 느슨해지거나 확인을 소홀하게 하면 언제든지 수업참가자는 수업출석자로 전락한다. 또한 발문→거수→지명→발표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명이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해야 하고 정답 맞추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전환할 때 학생들은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교사(教師)다!



서수민
창원 광려중학교 교사

1. 들어가는 말

12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교직생활 속에서 깨달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면서 나는 과연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스러운 수업을 해 왔는지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평소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면서 ‘내가 이번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얼마나 이해했을까?’,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쏟아 부었는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다.

수업은 한 편의 연극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관객인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나리오와 연출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2년간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자료들과 좋은 수업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2. 수업을 연구하며

가. 3종 이상의 지도서를 연구하자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 첫째, 교사는 교과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6종의 수학교과서를 살펴보면 내용은 모두 비슷하지만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지도상의 유의점 등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습목표도 모두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다양한 출판사의 지도서를 분석하다보면 수업 내용에 포함시킬 핵심이 되는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

나. 생활 속 fun한 동기유발로 흥미를 갖게 하자

수업 시작 후 5분이 수업 시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짧은 시간에 교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한 시간 수업 전체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유발을 해보자. 그 중에 한

방법으로 크레이지 토크(Crazy Talk) 프로그램이 있다. 영어 등 외국어와 기타 사회, 공개 수업용 UCC를 제작할 때, 소리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변화를 줄 수 있다. 학습상황에 맞는 표정과 음성을 삽입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학습자에게 동기유발을 일으키고 흥미를 갖게 해 줄 것이다.

다. 전시학습과 관련지어 설명하자

본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학습 내용을 발문을 통하여 반복 지도함으로써 연계성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는 학습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예로 들어보자. 문장제 문제 즉, 활용문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단원 중 한 단원이다. 일차부등식의 활용 단원 수업 시 바로 앞 단원인 연립방정식의 활용과 1학년 때 배운 일차방정식 활용의 풀이 단계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뒤 수업을 전개하면 본시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라. 자기 주도적으로 수준별 문제풀이를 하자

수준별 문제를 통해 학생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개별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해결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도우면서 학생 상호간의 멘토·멘티 활동도 진행시킬 수 있다.

마.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포기(?)하지 말자

수학과 같이 계열성이 강한 과목들은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방치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영 맘이 편치 않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수준별 개별학습시 다른 모둠에 있지만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이동시켜 조작적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맺으며

유능한 교사는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그리고 업무능력의 3박자를 갖춰야 한다. 처음 교직 3년의 생활태도가 30년의 교직생활을 좌우한다고 한다. 교사들의 권위는 실력의 권위와 업무능력으로 평가받으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부단히 자기연찬과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사에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수업에 대한 열정이고, 열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바로 부단한 노력과 연구이다. 교육은 감동이며, 학생들과 레포가 형성될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고마운 스승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찬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무엇보다 수업을 잘 하는 교사,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하는 헌신적인 자세의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5명의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활동



윤 나 리

양산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2011학년도 유치원교사 학습활동연구대회의 활동유형은 자유선택활동이었다. 대회 참가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유선택활동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어떻게 자유선택활동을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었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자유선택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다보니, 자유선택활동도 다른 대소집단활동과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활동보다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의지와 흥미, 욕구 등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다음은 자유선택활동을 계획·실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유로운 활동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들이다.

1. 자유선택활동 계획

첫째, 교실의 각 흥미영역의 이름이 유아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조형영역, 수·조작영역 등)로 되어 있어 친근하고 쉬운 용어(쌓기방, 역할방, 언어방, 미술방, 수학방 등)로 바꾸어 보았다.

둘째, 만 4세 유아들은 아직 한글을 잘 읽을 수 없기에 각 영역과 무지개 색깔을 연결시켜 유아들이 색으로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쌓기방-빨강색, 미술방-주황색, 역할방-노랑색 등)

셋째, 만 4세 유아의 기억력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색으로 무지개표(계획·평가표)를 만들고 그곳에 자신이 활동할 영역을 스티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유아들이 활동을 계획하기 전 각 영역에 새로 제시된 교구를 소개하여 유아의 활동 계획을 도왔다. 따라서 일일주제에 해당되는 새로운 교구 3점의 놀이방법과 주의점을 ppt로 소개하고 유아와 함께 각 교구가 어느 영역에 배치되어야 할지 알아보았다.

2. 자유선택활동 실행

자유선택활동시간은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여 자신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때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또한 활동을 구성할 때 놀이의 절차가 확고한 매뉴얼화된 활동으로 구성하기보다 유아의 창의성에 의해 자신의 방법으로 놀이를 변형시켜가는 창조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적인 놀이감을 이용한 활동으로 계획하려 노력했다.

3. 자유선택활동 평가

첫째, 각 영역의 활동이 끝난 후 바로 그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무지개표에 평가스티커를 붙이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둘째, 정리음악이 들리면 자신이 있었던 영역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무지개표를 ‘또 놀고 싶어요’라는 정리판의 가장 재미있었던 영역에 걸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활동한 영역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셋째, 하루 하루 사용한 무지개표를 자유선택활동 계획·평가책에 붙여 일주일동안 유아의 각 영역 선호도를 알고 평가할 수 있었다.

넷째, 자유선택활동은 유아들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양보, 질서, 배려, 공유 등의 사회적 기술도 익혀야 하기에 꿈빛반의 칭찬왕(양보왕, 듣기왕, 정리왕)을 뽑아 강화물을 제공하고 대리강화에 의해 유아들이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역판



계획·평가 책



새로운 교구 설명



계획하기

자유선택활동이라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낯선 수업을 공개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자유선택활동의 의의를 잘 살릴 수 있을까였다. 즉 유아가 100%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계획하고 싶었다. 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김선녀 부장선생님의 지도조언과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였다.

차 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학생 / 학부모 서비스 II

NEIS

차세대 나이스에서 학생/학부모 서비스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학생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해 학생서비스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7월호에서는 추진방향, 확대된 서비스 항목들,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서비스 주요개선 내용들과 바뀐 권한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부모 서비스 주요 개선 내용

▶ 대국민 통합창구 오픈 및 시스템 개선

-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대국민 통합창구를 구축하여, 민원, 온라인채용, 검정고시 등의 서비스와 함께 학생/학부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www.neis.go.kr 및 기존의 www.parents.go.kr 로 접속하여도 자동 연결됨.

- 대국민 통합창구에서는 회원제(회원가입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간 SSO 및 시도교육청간 SSO를 지원합니다. 단, 회원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엔 가입한 ID/PW만으로 교육활용정보 및 학교관련정보 등을 열람 가능합니다(그러나 학생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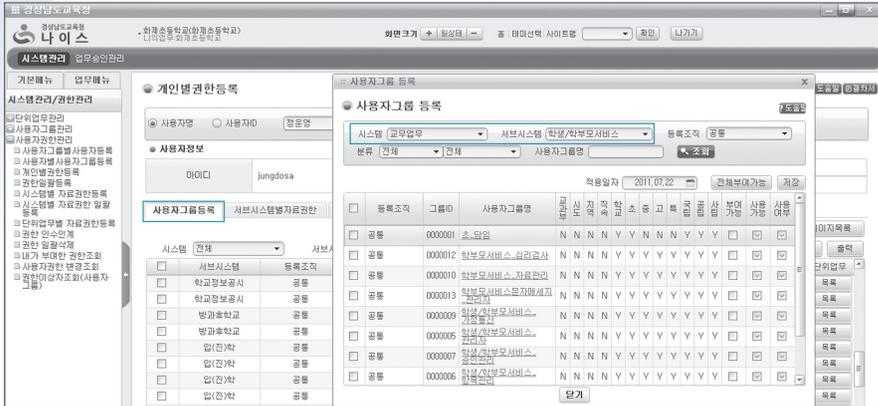
- ※ 기존 회원의 경우, 기존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승인받아 열람하던 자녀의 정보는 승인을 위한 재신청 절차 필요 없음.
- 열람서비스 신청 및 승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학, 상급학교 진학시 학부모가 재신청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교사는 기 승인정보를 활용하여 일괄 신청된 정보를 승인
- ※ 참고로 학생서비스는 학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학교의 별도 처리없이 나이스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승인처리 됨
- 방과후학교 수강내역(강좌 및 출결조회), 대입전형자료 제공 현황, 교육비 납입현황조회, 국가학업성취도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교사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들에 대해서 학부모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나이스 업무메뉴에도 제공합니다(해당 학생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 가능).
- 업무포털에서 학부모서비스 승인요청건수 정보와 상담신청건수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전체 가정통신문 기능을 강화하여 회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집계처리 및 결과에 대한 엑셀명렬표 다운로드 기능 등 학교에서 필요한 학부모 동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 신청현황통계 메뉴에 현재 가입된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조회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 ※ 학생수는 현재일자에 해당하는 학교별 총 학생수 기준임(교무업무-학교기본정보에서 보여지는 현재일자의 총 학생수).
- 학부모서비스 제공항목관리 메뉴에서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제공되는 학교 콘텐츠들에 대해 현재 서비스 여부 및 제공시기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대국민서비스로 제공되는 학부모서비스 콘텐츠 종류 및 업데이트 시점에 대해 학교 담당자가 인지하기 쉽고 관리도 용이하도록 기능 제공. 현재 성적 등 수동반영 메뉴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학적, 대입전형, 교육과정 등 전 메뉴에 대해 확대 적용
- 개인 전달사항 전달 시 권한 있는 학년/반 학생들을 동시에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자료 권한 부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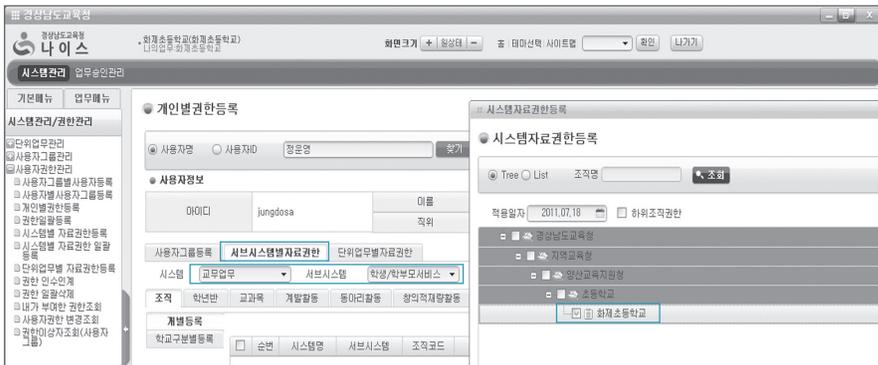
▶ 사용자 그룹 등록



- 기존의 나이스와 달리 학생/학부모 서비스가 별도로 서브시스템으로 코드가 존재하므로 개별로 권한을 부여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 나이스에서의 학생/학부모 시스템별 자료권한 부여(구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학부모서비스라는 코드자체가 별도 존재하지 않음, 즉, 교무학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으로 학부모서비스 역시 그 권한을 적용받음.)

▶ 서브 시스템별 자료권한 등록



- 서브 시스템별 자료권한 탭을 클릭한 후 시스템(교무업무)-서브시스템(학생/학부모 서비스)를 선택한 후 조회를 하면 권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스템별 자료권한 등록 창이 나타납니다. 학교이름에 체크하고 저장하면 권한 부여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핀란드의 평등교육

윤 수 영
창원 봉덕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핀란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핀란드 교육을 연구하며 자국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PISA(국제학력평가)의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역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적게 공부하면서도 PISA에서 높은 성적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 학원이 없는 나라, 학교 간 학생 간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일컬어지며,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가?

핀란드는 발트 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530만 명의 작은 나라로 숲과 호수, 섬이 많은 나라이다.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으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가장 청렴도 지수가 높은 국가로 선정된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여성의 위상이 높은 편이다.

3. 모두가 함께 가는 핀란드 교육

가. 핀란드에서의 교육의 의미

핀란드에서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교육을 으뜸으로 꼽고 있으며, 사회적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개인의 나이나 거주지, 경제 사정, 성별, 모국어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주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학교(보통의무교육기관, 1~9학년)는 수업료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와 학교 급식까지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며, 핀란드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경쟁이 없는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 교육의 성취는 경쟁의 결과이고 핀란드 교육은 협력의 결과라고 말한다. 핀란드에서의 학습은 학생들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개별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험은 학생들의 서열을 정하기보다는 내가 학습하는 태도, 내가 아는 것을 점검해 보는 학습의 과정으로 존재한다. 배움에 중심을 둔 평가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입학 시험이나 졸업 시험, 또는 외부에서 위임된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시험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 서열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학입학자격시험 또한 직업학교와 인문학교의 넘나들이 유연하기 때문에 ‘평준화다, 아니다.’를 거론할 필요 없이 공부 잘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한데 어울려 협력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벌인다. 모둠으로 가르치되 떨어진 한 개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아이들이 함께 가도록 배려한다.

지역별 학교 성적의 차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가 매우 적다. 이는 개별 학생들의 욕구가 잘 충족되고,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학교교육이 자연스럽게 학력 향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낙오자가 없는 교육

핀란드 교육에는 낙오자가 없다. 모든 학생들이 중도하차 하지 않고 일정한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이다. 시장과 경쟁 이데올로기가 바탕을 이루는 세계화 현상과는 달리 핀란드는 안정적인 교육평등화 정책을 추구하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공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정책의 기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쳐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각 학생이 학습 계획을 세워 각자 무엇을 배울 것인지 정하며, 학습 속도 역시 자신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대한 목표에 미달되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그 목표를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느라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나라 교사의 상황과는 달리 교사 혼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늘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가르친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보조 교사, 주된 교사가 그룹을 나누어 가르치게 되므로, 뒤쳐지는 학생들을 수시로 확인하며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차게 이루어지는 학생지도 상담 역시 학생들의 성취를 끌어올리고 낙오자의 비율을 낮춰주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초교육 6년 과정 안에 정규 교육으로 통합되어 있다.

라. 차별과 구별이 없는 통합교육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핀란드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을 기본으로, 질 높은 교수·학습을 추구하면서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잃지 않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은 늘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일반학급에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헬싱키에는 특수학교가 다섯 군데 뿐이다. 나머지 장애 아동들은 모두 일반학교에서 공부한다. 일반학교에서는 일반교사 외에도 특수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이들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의 경우 보통의무교육기간인 종합학교 과정의 9년보다 2년을 더 다닐 수 있는데, 그만큼 장애아동들을 더 배려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한다.

마. 전문적 자율성을 행사하는 높은 수준의 교사

핀란드에서의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개별 학생을 위한 최적의 학습 상황을 제공한다. 국가교육과정 틀 안에서의 영향이 최소한이며 교사들에게 전문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국가적 단위의 시험은 없으며 교사 스스로의 교육적 판단을 가지고 학습하며 그것의 성취에 대한 자율적 평가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를 내 아이를 지도하는 교육의 전문가로 믿고 신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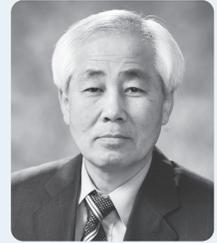
핀란드의 교사는 다른 선진 국가의 교사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모두가 가르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있다.

4. 나오며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핀란드 교육의 핵심 목표인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평등교육이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기회와 다른 이들과의 경쟁과 비교가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고, 배우며,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교사, 학교를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신념이 함께 어우러져 일구어낸 결과이다.

‘마지막수업 프로젝트’ : 자유상상화로 꿈을 펼쳐요



오 창 성

마산중앙초등학교장



01

1. 「마지막수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42년 6개월간 초등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금년 8월 31일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교실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못다 가르친 아쉬움을 담아 마지막까지 가르침의 열정으로 창의성과 협동심을 길러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자유상상을 주제로 ‘마지막수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다.



02

오창성 교장 선생님은 평생동안 같고 닳은 수업 기술을 총동원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자유상상협동화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집단이나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에 내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작품 활동을 통하여 미감(美感)이 형성되고, 전체와 부분을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등 참여자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런 활동을 통하여 나온 수업 자료를 공유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감동을 나누기를 희망하면서 마지막수업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03

2. 전교생의 꿈과 희망을 자유상상화로 표현하다

국내에서 가장 큰 협동화로 예상되며 동시에 기네스북에도 등록될 만큼 큰 규모인 폭 1.05m, 총길이 153m의 협동화 작품은 주로 특별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시간을 이용하여 강당에서 제작해왔으며, 지난해 졸업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의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함께 참여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미술수업을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우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종이크기에 얽매이지 않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 01 2010.11.20 마지막 수업 시작 때의 모습
- 02 6개월에 걸쳐 한 학급씩 참여하여 작품을 제작
- 03 완성을 앞두고 5학년 3반 어린이들이 협동화를 채색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미술을 진정 즐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어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 작품은 추상화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드는 작품으로 참여자의 심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회화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화적인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채색에 관한 모든 방법을 허용한 표현활동으로 회화의 영역이 무한함을 자각하고 질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작품마당에 참여한 학생은 “우리가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니 마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된 기분이었다, 이제 미술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등 6개월의 작품제작 기간 내내 본교의 아이들은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였다.

3. ‘마지막 수업 프로젝트’ : 자유상상화로 꿈을 펼쳐요 감상회를 가지다

마산중앙초등학교는 2011년 7월 13일(목) 11시에 ‘오창성 교장 정년퇴임 기념’ 마지막 수업 프로젝트인 협동화의 작품 감상회를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작품 감상은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던 완성 작품을 강당에 전시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아이들은 “와~”, “신기하다!” 하고 탄성을 지르며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자신이 참여한 부분을 발견하면 “내가 그린 것 여기 있다!”, “여기도! 여기도!” 하며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하였다.

올해 입학하여 작은 손으로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양한 색을 열심히 칠하였던 1학년 학생부터 작년부터 작품제작에 참여하여 처음부터 작품 완성까지 함께한 고학년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신이 이 대형작품 제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는 뿌듯함과 작품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시회를 마무리 지으며 평소에 좋아하던 경구인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서예작품으로 만들어 퇴임기념으로 기증하고 학생들에게 설파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임진왜란 당시 선조임금께서 이순신장군에게 조선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편입해 싸우라는 명을 받자 장군께서 선조임금에게 올린 장계 중에 나오는 말 중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남아있고 신이 살아있습니다”라는 말) 정신은 이 시대에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가져야할 위대한 정신이

04



05



04 완성된 협동화

05 7월 14일 작품전시회 모습 -1

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가르칠 때 진정한 교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프로정신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였으며 교사의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죽을힘을 다하였다고 하면 과장된 말로 들리지만 교육과 행동으로 인간정신을 심어 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넘겨주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담배씨만큼이라도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감상회 후 총길이 153m의 일부분인 7m의 작품은 본교 2층 복도에 전시하였다. 아이들은 수시로 복도를 왕래하며, 작품제작의 감동과 그 여운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학교를 굳건히 지키는 협동화 작품으로 인하여 제작과정에서의 참여자 모두의 열정은 아이들 가슴 속에 오래 기억 될 것이며, 본교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무한한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06



07



06 7월 14일 작품전시회 모습 -2
07 학교 2층 복도에 전시된 약 7m길이의 작품의 일부



몸과 마음이 행복한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책가방 없는 토요일 상상해보셨나요?



윤 한 실
창원 웅동초등학교 교장

▣ 토요일은 학생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당장 공부할 도구가 사라졌다는 우려 섞인 말들을 꺼낼 것이다.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 하는 날! 그날이 바로 토요일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일요일보다 토요일을 선호하는 것은 즐겁고 신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머물고 싶은 날을 마련해 줄 수는 없을까?’ 라는 전제하에 본교는 학교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학생중심의 즐기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날 학력 향상 속에 갇혀 버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행복’이며, 학교가 그것을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교는 2009.개정교육과정 속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 협의 결과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체험활동을 토요일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날을 ‘즐겁고 신나는 책가방 없는 토요일(이하 토요일학습)’이라 이름 지었다. 토요일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의 신명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강조되는 개성, 흥미, 능력, 취미, 특기를 살리는 교육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본 활동으로 학생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과 탐구의 과정 속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토요일학습은 월 2회(1일 4시간), 연간 80시간(특별, 재량,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며 사전, 사후 지도를 통한 교사 평가회, 일기쓰기, 보고서 및 견학 소감문 작성,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토요일학습의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01



02



03



- 01 교과통합체험활동
- 02 농촌체험(양파수확)
- 03 소사전 생태학습

▣ 토요학습을 위한 학교운영시스템 리모델링하기

다양한 활동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에서 1, 3주 토요일에 학교행사를 비롯한 창의적 체험활동(3~6학년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교과학습과 행사활동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통한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토요학습과 관련된 활동계획서를 학급 및 학년단위로 매주 작성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 분석과 학교행사, 경남특색교육과의 조화를 고려한 응동인만의 7가지 체험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세부항목으로는 역사의 숨결이 숨 쉬는 고장 응동의 얼 체험을 위한 고장탐사,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환경체험, 학생의 기본적인 능력함양을 위한 학교특색활동,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과 미래 세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적응활동,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동아리활동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학급 및 학년만의 특색활동을 취미활동, 체육활동, 음악활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

기존의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에서 학급 및 학년행사로 세분화하여 활동규모를 줄였고, 활동일, 활동내용, 활동범위에 융통성을 두어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 즐겁고 신나는 우리들의 토요학습 100% 즐기기

학생들의 체험 활동은 크게 학교행사, 학년행사, 학급행사로 구분된다. 친구의 날 행사, 어울마당, 과학의 날 행사 등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학년 및 학급 활동은 융통성을 주기 위한 6주제의 활동을 별도로 운영하였는데 크게 독서 체험활동, 환경 체험활동, 고장 탐구활동, 음악활동, 체육활동, 민속놀이 체험활동이다. 학년별 체험 주제, 체험일, 교내/교외활동에 학생들의 요구와 담임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속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지역의 특성과 학교 주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체험 중심의 토요학습 프로그램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 고장탐사 - 김달진문학관과 성흥사(문화재탐방), 내 고장 산 오르기
- 환경체험 - 숲 체험(진해만 생태 숲, 목재 체험관, 두동도예지), 생태체험(남부내수면연구소, 해양공원, 소사천), 환경체험(에너지과학공원, 마천주물공단)



04



05



06

- 04 응동어울마당
- 05 인형극체험
- 06 체력향상줄넘기

- 학교특색활동 - 양성평등 활동(시범학교), 재량(안전, 폭력예방, 진로, 다문화, 논술, 보건, 정보, 환경), 독서교육(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활동, 책 읽는 마을)
- 적응활동 - 친구사랑 운동, 4.3만세 운동, 우리학급 양성평등, 장애체험활동, 우리 학급 도전기
- 동아리활동 - 뉴스포츠부, 합창부, 사진부, 게이트볼부, 축구부 등
- 학급·학년특색활동 - 취미활동(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영화 감상, 요리, 독서 등), 체육활동(줄넘기, 배드민턴, 족구, 축구, 민속놀이 등), 음악활동(학급 합창단, 기악 합주, 1인 1악기 연주 등)
- 봉사활동 - 교내(학교 사랑 정화 활동, 캠페인 등), 교외(생태 지킴이, 장애인 돕기, 노인복지시설 정혜원 위문, 마천노인당 봉사, 캠페인 활동 등)

▣ 즐거운 토요일! 우리학교가 좋아요(학교를 학생 품으로)

2011학년도 1학기는 학생을 위한 교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토요일 학습 연간 운영 계획이 교직원들의 협의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교직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실천함으로써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가 얻고 싶었던 것은 학생들의 행복이었다.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학교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고, 학습에서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 학습을 통해 협동과 봉사, 배려의 정신을 체득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탐구정신, 창의성을 스스로 키워나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도 토요일 학습이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올 한해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다른 교육활동에까지 확대·적용·발전시키고자 한다.

07



08



09



07 양성평등 단체줄넘기 체육활동

08 정혜원 봉사활동

09 4.3만세 운동(고장역사체험)

F-4(Fun-4)와 즐기는 행복한 학교 (1학년 1지킴이 활동)



안 국 태
창원 상일초등학교 교장



01



02



03

I. 이렇게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각종 유해성 사이트 접촉으로 인한 탈선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이버 유해환경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대중가요, 드라마, 신문광고 등 TV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의 폭력성이나 선전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상일초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시범학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소중한 나 지킴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해환경을 식별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소중한 나 지킴이’ 프로그램 중 ‘1학년 1지킴이 활동’을 소개한다.

‘1학년 1지킴이’ 활동은 각종 유해매체에 노출되어 미디어와 게임, 개인적인 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신체 활동 및 정서 순화 활동, 건전한 대체 놀이 활동을 경험해 봄으로써 평소 여가 활동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함께 실천했어요

활동명	세무실천내용	시기	자료
F1-독서활동	아침독서활동 독서능력인증제	연중	도서, 독서록
F2-동요부르기	학년별 선정 동요 부르기 1인 1악기 다루기	〃	동요 동영상 및 플래시
F3-체육활동	즐넵기 활동 아침건강 달리기	〃	즐넵기
F4-여가활동	혼자 및 다함께 할 수 있는 실내 놀이 및 게임활동	〃	칠교, 공기, 비석치기, 보드게임 등

Fun-1 책과 친구하기

이 활동은 독서능력인증제와 월별 도서관 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독서활동이다. 아침 활동시간, 쉬는 시간 등 틈틈이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책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는 활동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01 음악과 친구하기
- 02 체력과 친구하기
- 03 젓가하는 모습

Fun-2 음악과 친구하기

‘기분 좋은 동요 부르기’로 전교생 공통곡과 학년별 학생들의 정서발달 정도와 교과와 연계한 학년곡을 선정하여 동요 부르기, 전 학급에서는 시범학교 과제인 ‘소중한 나 지킴이’(YP)를 적용한 반가를 정하여 부르며, 1인 1악기를 선정하여 꾸준히 연주하고 있다.

등굣길에는 요일별 테마(월·수·금요일 : 동요곡, 화요일 : 감상곡, 목·토요일 : 영어동요곡)를 정하여 학교방송을 통해 음악소리에 발걸음도 가볍고 즐거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Fun-3 체력과 친구하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테마별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 건강 운동장 달리기, 줄넘기 달인 도전을 통해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며, 학년별 긴줄넘기 대회와 교기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함양과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운동 습관성을 기르고 있다.

Fun-4 친구와 함께 하기

쉬는 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실내에서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내 놀이나 게임을 준비하여 동료들끼리 우애와 소속감, 협동심 등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II. 이렇게 바뀌었어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유익환경에서 활발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놀이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놀이 문화와 사회성을 함양하고, 서로 규칙을 지키며 자율적 준법성을 기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해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은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유해환경이 아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큰 꿈을 갖고 가꾸는 상일어린이가 되도록 노력 중이다.

04



05



06



04 소꿉놀이 장면

05 바둑놀이 장면

06 윷놀이 장면

학교에 가면 꿈들이 자라나요



정민화
창원 우암초등학교 교사



01



02



03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말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몇몇 직업들을 공통적으로 말한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과연 몇 가지에 국한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저마다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스스로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학교에서는 자기만의 큰 꿈을 찾아 키워갈 수 있도록 자기 이해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우암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꿈나르미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나를 알아 가자!

남과 다른 나를 인식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구체적인 예로 아동발달심리검사와 진로흥미적성검사, 남과 다른 나의 장단점 찾기 등이 있다.

2. 꿈을 찾아라!

상담인턴교사 활용,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인증제 실시, 외부 초청 강사를 활용한 직업 교육(타 기관 근무 종사자, 본교 졸업생, 학교자매결연 기관장 등), 교내 한자리 꿈 이야기 활동, 학부모 연수, 학교장 훈화 및 학생 상담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3. 큰 꿈을 키우자!

아이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꿈나르미 공부방을 운영하고 다양한 특기·적성 계발 활동을 전교생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한자리 꿈 이야기활동과

01 꿈나르미 공부방 개소식

02 나는야 수업리더

03 방과후-바이올린

수업을 직접 이끌어가는 수업 리더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익혀 자기 주도적학습 능력을 키워 나가게 한다.

▶ **꿈나르미 공부방 운영**

자신이 설정한 꿈과 관련하여 1:1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등으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과 자신의 꿈 실천을 위한 기초와 기본을 꿈나르미 공부방으로부터 차근차근 다져 간다.

운영 시간		시간(분)	운영 내용
1교시 (16:50~17:3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및 건강 상태 확인, 학생 심리 상태 파악 • 학습 계획 세우기, 학습 계획 작성 보조 •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보충 지도, 학습 도움
2교시	17:40~18: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 급수제(월, 금) • 동요 부르기(화, 목)
	18:00~18: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 IPTV 영어 콘텐츠 학습
3교시 (18:30~19:1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자람 기록장에 학습 내용정리 •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 **전교생이 참여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경험들로 인성 · 창의성, 잠재 능력을 계발하며, 농촌지역의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꿈 실천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1(09:00~09:40)					국악(3년) 영어원어민(3년)	
2(09:40~10:20)				무용(1~2년)	국악(4년) 영어원어민(2년)	
3(10:50~11:30)	영어강사(3학년)		악기(1~3년)	무용(3~4년)	국악(5년) 영어원어민(5년)	악기(1~3년)
4(11:40~12:20)	영어강사(4학년)		악기(4~6년)	무용(5~6년)	국악(6년) 영어원어민(6년)	악기(4~6년)
5(13:20~14:00)	영어강사(5학년)			사물(1~2년)	영어원어민(1년)	미술(3~4년)
6(14:10~14:50)	영어강사(6학년)		태권도	사물(3~4년)	태권도	미술(3~4년)
7(15:10~15:50)				사물(5~6년)	영어원어민(4년)	미술(5~6년)
8(16:00~16:40)						미술(5~6년)

04 방과후-우쿠렐레
05 음악줄넘기1

▶ 한자리 꿈 이야기 활동

전교생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3, 4교시에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꿈을 공언할 기회를 가지므로써 함께 꿈을 나누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진로 및 자치활동이다. 학년별로 자신의 꿈을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소개 하는 활동, 꿈이 비슷한 선후배끼리 만든 꿈 동아리 조직을 통한 직업 체험활동, 직업체험주간을 통한 다양한 직업세계 알아보는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역	활동주제	제재명	내용 요소
자기 발견	즐거움 출발 (3월)	• 함께 여는 꿈 이야기	• 1학년 동생에게 듣는 입학소감 • 우리들이 지킬 규칙 정하기 • 꿈 이야기듣기-교장선생님
자기 발견	꿈자랑 발표회 (4월)	• 나의 꿈 발표대회	• 나의 꿈 발표하기 • 같은 꿈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직업 이해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 (5월)	• 양성 평등한 진로 교육활동	• 양성평등관련 진로 강의 • 꿈 동아리별 직업 찾기 활동 • 동아리별 발표
직업 이해	나의 꿈을 날려요(6월)	• 꿈 비행기 만들어 날리기 및 나만의 꿈 노래지어 부르기	• 현충일 노래와 계기 지도 • 꿈 비행기 날리기
자기 발견	장기자랑 발표회 (7월)	• 끼를 펼쳐봐요.	• 동아리 및 특기·적성 재능 발표 • 꿈 활동 발표회

06



07



▶ 나는야 수업 리더!!

서로 다른 으뜸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며 학습의 리더가 되어, 가르치며 배우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동시에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다.

수업 리더는 학생이 수업을 직접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으뜸인 개인 내 및 개인 간 리더십을 키워간다.

〈수업 리더 역할 준비과정과 실행〉



06 꿈나르미 공부방 개소식
07 천연잔디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학습의 차원이란? <수업 리더가 참여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의 이론적 배경>

장학 및 교육과정 개발 협회(ASCD: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에서 출판된 사과의 차원 - 교과과정과 교육을 위한 체제)에서 기술한 인식 및 학습에 대한 포괄적 연구기반 체제를 확장한 것이다. 학습의 차원은 사과의 차원에서 설명된 연구와 이론을 K-12(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모든 영역에서 교수 및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제로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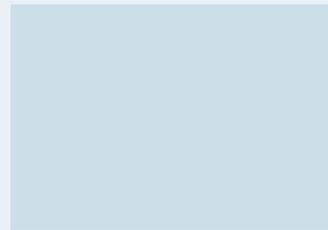


<학습의 차원 간의 상호작용>

3. 싱글 병글 재미가 넘쳐요!

천연 잔디 운동장과 함께하는 꿈나르미 공부방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온종일 학교에 머물러 있어도 싱글병글이다. 자신의 큰 꿈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잘 맞는 듯 자신감 넘치는 학교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 활동에 의욕적이며 특히 수업의 주체가 되는 수업 리더 활동이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서로 다르게 으뜸인 큰 꿈을 위해서는 마땅히 갖추어야 할 다양한 기본요소들이 있다. 학력, 인성, 소질과 적성 등등.....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학교에서의 준비와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꿈을 계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스스로 노력을 추구할 때 아이들은 마음껏 뛰고 놀고 즐기면서 자기만의 꿈을 다져갈 것이다.



08 태권도
09 한자리 꿈 이야기

자연과 함께한 구두산 야영수련활동



정근수
남해 설천초등학교 교사



“이번 야영지는 구두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영은 야영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와 전문 인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군대식 야영이 아닌가. 하지만 구두산은 그런 야영 시설이 전무한 곳이다. 덜컥 겁이 났다. 화장실도 없고 세면장도 없는 산 중턱에서 어린 학생들과 하룻밤을 지새워야 한다니. 게다가 요즘은 독사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시기 아닌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야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다

보통의 야영 준비보다 몇 배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다. 야영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야영지 답사가 가장 우선이었다.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곳이라 평소 익히 알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야영지로서 적합하기를 따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엄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했다. 야간 탐력 훈련 코스가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주변에 혹시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야영지까지 스쿨버스로 이동 가능한지 등등 꼼꼼하게 야영지를 살피고 또 살폈다. 결론은 예스. 하지만 화장실, 세면장 등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많았다.

야영을 이틀 앞두고 주무관님들이 야영지에 풀을 베는 작업을 해주셨고, 야영 전날에는 전교직원이 모두 야영지로 올라가 허름하게 방치되어 있던 화장실을 청소하고, 발전기를 돌려 불을 밝히고, 물을 끌어와 간단하게 세면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었다. 혹시나 모를 독사의 출현을 막기 위해 담배가루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준비해 학생들이 가지고 올 식재료들을 모아두기로 했다. 캠프파이어와 같이 크게 불을 피우는 것은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쌓고 그 아래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어 분위기만 살리기로 했다.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교사용 텐트 2동을 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누엣누엣 반대편 산 아래로 넘어가고 있었다.

비도 방해하지 못한 우리들

야영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입영 선서 후, 야영의 첫 활동으로 1박 2일간 학생들의 숙소가 될 텐트를 피앗별로 학생들이 직접 설치하였다. 피앗이란 형제애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우리학교는 연초에 피앗을 조직해 체험활동이나 수련활동을 피앗별로 실시를 한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우리 학교의 특성과 형제 없이 자라나는 요즘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피앗 내에서 고학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챙기고, 동생들은 고학년 형, 언니들을 믿고 따른다. 텐트를 설치하는 활동 역시 형과 동생들이 힘을 합쳐 완성하였다. 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직접 물을 길러 와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였으며, 야외취사라 바람이 불어 밥이 설익기도 하는 등 학생들은 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피앗장의 리더십과 피앗원들 간의 협동심으로 오히려 즐겁게 취사활동에 임하였다. 어설피 밥과 반찬이지만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더해져 어떤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코펠 바닥이 뚫릴 듯한 기세로 밥을 먹었다. 밥알 한 톨의 귀중함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오후 과정활동으로 코스별로 7가지 활동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전 학생들이 야영장내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을 하였다. 과정활동 중간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려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천 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우비 덕분에 활동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 역시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극기심을 보여주었다.

나를 이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저녁식사가 끝난 뒤 계획된 잠행과 야간담력훈련에는 약 40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해주셨다.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진행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학생들은 더욱 즐거워하는 눈치였다. 눈을 가린 채 진행된 잠행이 끝난 뒤, 손전등에 의지하여 어두운 산길을 헤쳐 나가는 야간담력훈련이 시작되었다. 내 마음 속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야간담력훈련은 교사들도 긴장하고 학생들도 긴장했던 시간. 혹시나 어두운 길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앓을까, 전교직원들이 긴장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간간히 외마디 짧은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 속 두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 내심 기특하였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잠들었을 시간, 야영 응원을 오신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원으로 둘러선 우리 학생들은 손에 든 작은 불을 바라보았다. 타들어가는 불꽃과 나지막이 퍼지는 '사랑으로' 노랫소리에 눈을 감고 평소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진지하게 나와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은 야영의 캠프파이어 시간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들다. 노랫소리가 나오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학생도 있었다. 나 역시 어머니가 생각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야영을 마치며

산에서의 하룻밤은 평소보다 훨씬 추웠으나, 서로의 온기로 무사히 하룻밤을 지냈다. 어느 때 보다 힘든 야영수련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소감문에는 의외의 반응이 많았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요.”

야영가기 전, “뱀돼지 나오면 어떡해요?” 하며 걱정하던 녀석들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가 넘쳐보였다. 야영 담당 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직원들이 이 야영 활동을 위해 며칠을 매달렸고, 나 역시 신규발령을 받은 이후 가장 힘든 학교 행사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이 야영활동이 우리 학생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한 생각이 더 들었다. 그리고 이번 야영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배려와 띠앗원간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야영(野營)이라는 그 말 그대로의 취지에 맞는 야영을 한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교직생활을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햇살아이와 햇살부모의 생각 씨앗을 싹틔우는 물방울 학급경영



이 현 님
김해 주석초등학교 교사

1. 물방울 학급경영 오리엔테이션

인생은 DRAMA !

Dream(꿈)*Romance(사랑)*Action(행동)*Mystery(호기심)*Adventure(모험)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고 난 토요일 오후 ‘인생은 DRAMA!’ 라는 주제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급경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학부모 공개수업 때 어머니들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버지들께 메일머지로 작성한 개별 편지를 드렸다.

[어머니가 산소와 같은 존재라면 아버지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늘 옆에 계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한 번씩의 잠깐 교류만으로도 빛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아버님!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아버지라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 년에 한번(2011. 4. 16-토 10:30) 있는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에 오셔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아이들 마음 속에 아버지 앞에서 공부했던 행복한 추억이 오래도록 자리할 것입니다. 행복한 추억 향기를 빛나게 해 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 편지글 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드린 후의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에 우리 반 학생 수 32명, 어머니 26분 아버지 8분이 오셔서 34명의 학부모님이 참관 하는 가운데 공개 수업을 하였다. 공개 수업 후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서로의 마음에 몽클하게 남아 있다.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한 학급 경영 오리엔테이션은 3시 30분경까지 햇살 부모님들과의 행복한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님의 이름표와 학급경영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모든 학부모님의 이름을 써서 준비하였다.

01



02



01 김해숲길마라톤 대회 참가단체 1위 시상

02 물방울 학급경영 오리엔테이션

2. 경남교육 시책과 함께 하는 학습홈페이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글보기(476) ☞ 꿈나르미 ☞ 노래하는 학교 ☞ 햇살가족 하모니 ☞ 독서하는 학교 ☞ 햇살아이 책과 놀다 ☞ 햇살부모 책을 보다 ☞ 운동하는 학교 ☞ 올림픽의 꿈 ☞ 햇살부모 ☞ 햇살부모 느낌표!! ☞ 물방울 학급 ☞ 물방울 학급경영 ☞ 물방울의 추억 풍경 ☞ 햇살아이 ☞ * 노벨상 * 행진곡 ☞ 햇살아이 *토론방* ☞ 햇살아이 알콩달콩 ☞ 마중물 프로젝트 ☞ 링크메뉴 ☞ 햇살상상 *방명록* ☞ *산소별* 아이디어 ☞ 1. 공영운 ☞ 2. 서성준
--

메뉴 구성	설명 및 실적
노래하는 학교	• 햇살가족 하모니 -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불러 보실 수 있는 음악 자료 탑재
독서하는 학교	• 햇살 아이 책과 놀다. • 햇살 부모 책을 보다 - 학부모 독서 토론 전개
운동하는 학교	• 올림픽의 꿈 - 김해수길 마라톤 대회에 '주석초 햇살아이 햇살부모' 참가하여 단체 1위 수상, 상금 50만 원 함께 수상하여 학교에 기증함
물방울 학급경영	• 학사 예고가 될 수 있도록 주간학습 안내 탑재
아동 개인별 이름 메뉴	• 아동 개인별 방을 만들어 주어 자신의 과제물이나 보고서 탑재 - 수행평가 역할 함께 할 수 있음

03



3. 학부모 상담 96.7% !

학부모 상담률을 96.7%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학부모의 개별 시간을 아래와 같이 미리 설계하여 안내하였기 때문이다.

◆ 학부모 상담 시간 배정표(예시안) ◆

월일	3. 21(월)	3. 22(화)	3. 25(금)	3. 28(월)	3. 29(화)	4. 1(금)	시간	4. 2(토)
15 : 00	1.공영운	6.허영광	12.조형준	18.김윤주	23.윤재원	28.김민서	12:40	♥
15 : 20	2.서성준	7.곽지환	13.김태우	19.권유진	24.이은솔	29.백희선	13:00	♥
18 : 00	♥	♥	♥	♥	♥	♥		

1차 학부모 상담 일정 안내를 통하여 학부모님을 위해 준비된 시간을 미리 알려 드리고 알림장이나 전화 등으로 상담 시간을 조율하여 확정된 2차 확정안을 다시 아래의 내용을 담아 부모님께 편지를 드려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였다.

[저는 어린왕자의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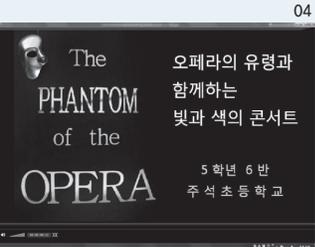
“나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마치 5억 개의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해서 ……,

(“At night I love to listen to stars. It is like five hundred million little bells …… ”)

- the little prince

03 학부모 초청공개 수업 장면

04 과학 UCC제작:빛과 색의 콘서트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별들이 되리라는 소망을 하며 5억 개의 방울 소리를 울릴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학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상담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 2차 상담 일정 안내문 내용

4. 물방울 학급경영의 중심 축 - 주간학습안내

5학년 6반	2018학년도 - 5학년 - 1학기		수석 조동복 학교 http://www.usgok.or.kr		
주간 학습 안내		경남 김해시 장유면 통신로 81-36 교공무원 65530347 ☎ 011-4072-2694			
계 13 회	기간	5월 23일 ~ 5월 27일		본 *이름:	
요일(날)	월(23)	화(24)	수(25)	목(26)	금(27)
행사안내	*4학년 *3학년~4학년				
숙제	***** 매일 일기 쓰기 ***** 매일 출근 전 20분 기록 독려 시간 갖기*****				
준비물	1학년 주석초세안용제 및 수 자석이 비치되어 있는 책 가져오기				
학교통신(00)	유동기 쓰기(9월 30일까지), 유동기 100개 이상(100개 이상) 작성(10월 31일) 없는 분기 *4*				
이동통신(40)	숙제도서 - 한국역사 관련 책, 5학년 독서 인증서 책, 어린이생리(영어 원서 포함)				
요즘반장	27. 도시촌	28. 김민서	29. 배희진	30. 권예원	31. 임혜선
달별봉사활동	**** (오월 반) 21 번 정애민 *** (월) 자유 기증 쓰기, 신학 장인 포도 밭소 밭갈기 활동				
1	수학(의결)	수학(의결)	체육	수학(의결)	수학(의결)
	3. 분수의 덧셈 (40쪽) 4. 분수의 곱셈 (40쪽) 5. 분수의 나눗셈 (40쪽) 6. 분수의 소수 7. 소수의 곱셈 (40쪽) 8. 소수의 나눗셈 (40쪽)	5. 도형의 합동 (68쪽)(1-2회) 6. 도형의 넓이 (40쪽) 7. 도형의 둘레 (40쪽) 8. 도형의 대칭 (40쪽)	3. 분수의 덧셈 (74쪽)(2회) 4. 분수의 곱셈 (42쪽) 5. 분수의 나눗셈 (40쪽) 6. 소수의 곱셈 (40쪽) 7. 소수의 나눗셈 (40쪽)	3. 분수의 덧셈 (74쪽)(2-4회) 4. 분수의 곱셈 (42쪽) 5. 분수의 나눗셈 (40쪽) 6. 소수의 곱셈 (40쪽) 7. 소수의 나눗셈 (40쪽)	5. 도형의 합동 (68쪽)(1-2회) 6. 도형의 넓이 (40쪽) 7. 도형의 둘레 (40쪽) 8. 도형의 대칭 (40쪽)
	등*말*쓰	영어	사회(왕구)	도덕(생각)	자재

물방울 학급경영의 가장 큰 중심축은 ‘주간학습 안내’이다.

다음 주의 수업을 설계하면서 준비물, 숙제, 오늘 반장, 당번 등을 꼼꼼히 안내한다. 알림장으로 주간학습 안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알려 주어 학습의 준비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높이는 2차 안전장치로 활용한다.

또한 주간학습 안내의 원칙이 있다. 첫째, 월요일엔 일기 쓰기 외엔 숙제를 내지

않는다. 둘째, 주간학습 안내의 숙제 외에 다른 숙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셋째, 준비물 또한 갑자기 다른 것을 준비하도록 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다음 주 주간학습 안내를 학교 오는 마지막 요일에 복사하여 나누어 준다. 다음 주 교과과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질문을 받아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인 준비물을 꼭 사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빌리기도 하여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다. 부모님들께는 학사 일정에 대해 시간을 내셔야 할 경우를 미리미리 안내하여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강연들의 정보를 수시로 안내해 드린다.

5. 햇살아이와 햇살부모의 생각 씨앗이 싹 틔워지길 소망하며…….

물방울 학급경영의 꿈을 꿈니다.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 줄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길 꿈꿉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인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滴水穿石)’는 말 그대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길 꿈꿉니다. 또한, 햇살아이와 햇살부모의 생각 씨앗이 어여빠 싹을 틔워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꿈꿉니다. 햇살과 물방울이 만나 무지개 빛깔의 다채로움으로 세상을 환한 미소로 가득 채우길 꿈꿉니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가정에서 하는 학습클리닉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중학교 1학년인 이모군은 자신의 학습 습관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고 싶어 센터를 방문하였다. 학교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때 그때 기분과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고 학원가기 전에 급하게 숙제를 하고, ‘잠깐 쉬고 공부해야지’ 했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느라 시간을 훌쩍 넘겨 하기로 했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었다. 학습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으나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부모님과과의 관계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자녀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위해서는 학습클리닉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습클리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녀의 시간 관리이다.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시간관리가 아니라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의 생활패턴에서 시간관리를 이해하고 자녀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Life Care가 필요하다. 자녀의 Life Care에서 자녀의 시간 관리는 부모가 50%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좋은 학원과 과외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학습 관리와 환경(학습자의 내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하는 학습클리닉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학습 시간 관리이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생을 둔 가정의 아이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학습하고 있다. 부모가 함께 아이와 학습상황에 동참하는 것은 스스

로 하는 학습시간 관리에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인내심 어린 모범적 실천이 성공의 관건이다. 바로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맞추어 부모도 같이 책을 보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환경적 규범과 선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시간 관리의 열쇠는 부모가 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가족회의를 거쳐 가족 전체가 이 분위기에 참여하도록 부모가 주도해야 한다.

둘째는 아이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이다

기초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분명 그 못하는 원인이 있다. 원인은 대략 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렇게 취약한 경우에는 학습동기와 기초실력, 자신감 결여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초실력을 강화하는 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제를 두고 이 기간에는 총력을 기울여 학습계획을 짜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단시일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난 경우엔 학습동기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부모의 인내심도 요구된다.

셋째는 공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학원이나 과외를 찾아다니면서도 공부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우리아이의 학습스타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는 정보를 받아들여 다양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알맞은 적절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아침 동요의 향기



우민섭

산청 삼장초등학교 교사

4월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어릴 적 성당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신부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셨다. 웬지 신부님을 보면 내안의 모든 치부들이 드러나 ‘어디론가 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는데, 학교를 찾아오신 신부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온화함이 물씬 풍기는 분이셨다. 학교에 오신 이유를 여쭙니 윗마을 홍계에 있는 작은 성당에 올 해 처음 부임하신 성요한 신부님으로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처음 본 인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모든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다.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인지, 왜 하시려는지, 학교의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선뜻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특히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별난 일들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니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본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분의 성함을 듣고서는 “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시도 쓰고 작곡도 하시는 신부님이 신데”라며 자신이 대학원에 다닐 때 뵈던 적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모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학교 일정에 따라 매주 화, 목요일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아침동요의 향기’란 주제로 신부님께서 직접 작곡한 동요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에 작곡



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시의 가사처럼 예쁘고, 사랑스럽고, 모든 이를 포용하는 인자함과 사랑이 느껴졌다.

한참 ‘아침동요의 향기’, 에 빠져 선후배시간에 서로 아껴주고, 보살피며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본교의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다. 이런 사실을 접한 산청군소방서에서 소방계장님과 담당 소방교님이 본교를 방문해 119소방동요대회에 참가를 권유받았다. 물론 소규모 산골학교에서 산청군을 대표해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벽지 산골학생에게 창원MBC 방송국 공개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결과에 연연치 않고 대회 참가를 희망하였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푸른 산 행복의 집’이란 곡목으로 전교생이 동요대회에 참가하였다. 전교생이 동요대회에 참가한 학교는 물론 우리학교 한 곳 뿐이었다. 선발된 5, 6학년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는 정말 내가 들어도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 선율과 율동을 열심히 연습한 우리학교의 발표는 전교생이 참여하였다는 것과 소규모의 학교에서도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만족의 산물인지 결과에서도 금상을 받는 감격까지 안게 되었다. 합창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던 6학년 여학생이 “처음으로 선 큰 무대여서 많이 떨렸는데 차츰 긴장이 풀리니 연습한 대로 잘 하고 나온 것 같으며, 나와 우리학교 학생 모두가 많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함께 합창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소리로 서로를 소중하게 확인하게 된 값진 경험이 된 것 같았다.

음악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아침동요의 향기’의 운영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며 서로 아끼는 향기로운 학교가 될 것이다.





노래로 종례해요



이 순 윤

하동 청암중학교 교장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교장실 앞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뜰해질 즈음 저쪽에서는 노래가 시작된다. 이 노랫소리는 차츰 커져 가다가 마침내 합창으로 바뀐다. 이제 나도 업무포털사이트를 열어 결재를 기다리는 업무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지. 오늘도 하루 일과가 끝나는가 보다. 안팎으로 아무 탈 없이 지나간 오늘을 누구에게 겐지 모르지만 감사한다. 아이들은 다들 싱싱하고 공부 잘하며 선생님들은 자리로 돌아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옆방에서는 행정실장님의 콧노래가 들린다. 딸 돌 후에 이번에는 아들 맞을 준비를 하는 중이라던가. 차물을 올리며 어디 휘파람이라도 불러보고 싶은 기분이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과가 끝나면 늘 저렇게 노래를 한다. 청소가 끝나는 대로 하나 둘 교실로 돌아와 노래를 부른다. 뭔가 저도 모를 뿌듯함 때문일까 원래 그럴 나이여서 그런가. 자리가 다 찰 때까지 계속되던 노래가 선생님이 들어가셨는지 이윽고 정돈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뀐다. 좀 있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는 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사실상의 일과가 모두 끝난다.

김형식 선생님, 오늘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락반장 정승호가 먼저 시작하는 날은 대개 이래요. 유행가 부르듯이 책상을 두드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좀 시끄러우셨죠?

아니, 무슨 말씀. 봐두세요, 그런 녀석이 있어야 활기가 있잖아요.

사실 녀석들의 노래가 썩 아름답지는 않다. 아직 목이 채 트이지도 않은 어린 장닭의 그것 같다 할까.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꼬끼요’를 처음 한 녀석이 먼저 시작하면 닭장 안의 나머지 모든 닭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화답을 해 영 시끄러웠던 어릴 적 기억이 있다.

요즘에는 레파토리가 안 변하던데요? 이 녀석들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반가(班歌)를 정하자고 해서 그러라 했더니 출창 그 노래만 불러대는군요. 지켜우면 또 바꾸자 하겠지요.

안 부르는 날도 있습니까? 안 부르는 날은 없는데, 힘이 없는 날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날은 들어보면 딱 감이 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날은 저도 같이 부를 기분이 잘 안 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예 입도 병긋 안 하는 녀석이 있기 마련인데 불러다 슬슬 물어보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저께도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성룡이와 우호가 청소는 안하고 도롱뇽 새끼를 갖고 놀다가 담당선생님한테 한 대씩 쥐어 박혔다더군요. 돌아와 두 녀석이 나란히 엎드려 있으니 그 옆에서 크게 노래할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날 그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썩 웃으시며 “그럼 오늘은 좀 풀어 줄까나” 하시더군요.

녀석들, 그렇게 커가고 있구나. 종례를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루한 법이지. 교실에 학생이 다 들어오면 노래를 불러 담임선생님이 종례하러 오시도록 무언의 협박을 보내는 그 생각을 옛적에 나는 왜 못했을까. 반장에게는 그게 은근히 힘든 일이었지. 선생님의 아이디어인지 아이들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역시 다들 나보다는 훨 똑똑하군.



Staying 2 years in Irvine, California

김 강 은

창원 삼정자초등학교 6학년

이 글은 삼정자초등학교 6학년 김강은 학생의 2년간 미국 체험기입니다. 김강은 학생은 2008년 12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의 어바인(Irvine)에서 2010년 12까지 생활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느끼고 얻은 소중한 경험담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미국 체험기는 미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Several days passed and I was going to take a test to see how good enough my English is to go to regular school. After about an hour, I came out of the room exhausted. The grade came later, and I was shocked because my English skill was so low that I had to go to ELD class, which is a special school for foreigners who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However, I think now it was a good choice to go to ELD because I made many special friends and met a very good teacher who helped to improve my English skill very quickly.

ELD class was pretty fun, but what I really wanted was to go to regular school. So, I studied English really hard, such as writing all the definitions of the words that I didn't know. The result of my effort was that I passed the test to go to regular school. Unlike Korean schools, American schools start a new grade in September and year-round schools in July. I was getting ready to go to regular school.

July 29th, the first day of going to Plaza Vista school, finally came. When I arrived at the school, all the students were standing in lines in front of the classrooms. There were many students from many countries, such as Italy, China, and Mexico. The classroom was very big compared with the classrooms in Korea.

I had to get up at 7 o'clock, because the class started at 8 o'clock. I was 5th grade, and the subjects were Mathematics, Science, Language Arts, Social Studie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I had 32 classmates and 3 of them were Korean. We did not take mid-term and final-term exam, but took pop quiz or small tests very often. Also, we used offices, which are the thick papers that are used to cover the students to prevent cheating.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was to go to Field Trip to Riley's Farm. We followed teachers to experience making butter, candles, sewing clothes, and many other things that were done in 1700s. What was most fun was eating hand-made caramel apples. A Caramel apple is an apple covered with caramel. We arrived at school at about 4:30 pm, and our teacher checked if all the students met their mom and went home safely. Like this, American schools make sure that all the students are safe when they arrive home.

When the last day before going back to Korea came, I was very thrilled about meeting all my friends again. There were many things I did in America that could not have been done in Korea. I had said good bye to all my friends and teachers the day before.

I woke up early that morning to go to LAX. Even though it was morning, there were a lot of people. My parents and I got the tickets. We sent our luggages and ate sandwiches for breakfast. I wasn't that hungry because I was already filled with excitement. Finally, we were on board, and started for Korea. As I was watching the movies and Pacific Ocean passing behind us, 14 hours passed like 5 seconds and we were in Incheon Airport.

Now 7 months passed, I'm getting used to Korean school again and made many friends. I often dream about going back to Irvine and meeting all my friends again. I am sure that my experience in Irvine will be very important when I grow up.

멘델스존의 스코틀랜드인



신 애 리

사천 동성초등학교 교사

시월 둘째 주 진양호 음악회를 마치고 바라보는 음력 구월 열 셋새 날 밤, 하늘은 짙 찬 만월로 휘영청 밝습니다.

꽤나 늦은 시각에 GS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가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굳이 그가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스치고 갔을 테지요.

“그동안 잘 지냈니?”

앞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는 아줌마가 절 보고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그 친구가 누군지 한참을 머리를 굴려서 생각합니다.

도저히 기억에 없는 얼굴입니다.

“내가 너무 늙었제.”

“나도 거울보고 놀란다. 저 여자가 누군가 하고 말이다.”

친구는 해맑게 웃으며 흩어진 세월을 주워 답습니다.

친구에게 저도 한마디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나는 모르지. 그 여자는 내가 아닐 거야.”

거울 속 여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울 속 여자가 누군지? 그 여자가 정말 나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멘델스존은 우아한 삶을 보장 받고 태어난 음악가입니다. 평생을 먹거리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한 일 없이 그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일만 생각하고 고상하게 즐길 일만 만들면 되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멘델스존은 우아한 오스트리아의 도시들보다 벽촌인 스코틀랜드를 더 사랑했습

니다. 거칠고 야만적인 바다, 원시의 힘이 넘치는 땅을 딛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대는 武人에 대한 동경이 그의 음악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멘델스존의 음악은 황량한 스코틀랜드 해안 절벽에 부서져 내리는 파도소리입니다. 히스가 하얗게 피어난 언덕을 휘도는 바람들의 아우성입니다. 가지 못한 첫길을 굳이 찾고 싶다고 길을 나선 나그네의 한숨입니다. 붉은 타탄을 입은 우직하게 늙어가는 스코틀랜드 병사의 어깨에 얹혀진 빛바랜 백파이프입니다. 빛나는 젊음은 가고 애조 띤 가락만 남아서 바람 빠진 주머니 속을 굴러다니다가 목이 쉬어 쉬엄쉬엄 밀려나옵니다. 그가 작곡한 <핑갈의 동굴>을 듣고 있노라면, 우아한 사나이 멘델스존 속에는 무지하고 단순 명쾌한 용맹심 하나로 거친 자연을 평정하며 살아가는 사나이가 하늘을 향해 표효하며 긴장을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서져 내리는 파도의 굉음 속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나이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과 가치와는 무관한 바람소리, 파도소리, 휘파람소리로 기억되는 사나이가 살고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언덕을 질주하며 바람을 가르는 사나이가 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인은 멘델스존의 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 녹녹하게 녹아 오늘까지 그 긴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 거울 속에 사는 여자는 아무리 잘 살펴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는 여자쯤 된다고 치부하고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갑니다.

예쁜 남자아이를 보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빨간 조끼에 청치마를 사고 싶어 하고 칠 줄도 모르는 통기타를 머리맡에 두고 사는 여자가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고개를 흔들고 늦은 밤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늘 막내인 줄 알고 아직도 더 자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여자가 멘델스존의 음악을 즐겨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